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정세균(더민주·서울 종로)

“야권통합 토양 만드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은 20대 총선에서 승리, 6선 고지에 올랐다. 전북 진안 출신인 정 의원은 상용그룹에서 수출 업무를 맡아 일하다가 지난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경제특별보좌관 제안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번까지 내리 6선에 성공했다. 18대 총선까지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에서 4선을 했고, 2012년 19대 총선 때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데 이어 이번에 재선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직수석비서관이던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의장을 했고, 2008년 7월6일에 통합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향후 당권에 도전하기보다는 국회의장이나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실제로 호남에는 ‘반(反)문재인’ 정서가 있지 않나.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합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 댄 골목에 연기가 나겠냐’는 생각이 할 수 있지만 역을 한 측면도 있다. 확대 재생산해 악용도 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직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호남에서 참패했다. 그런데 총선 후 반응이 없다.
▲애초 그 발언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김종인 비대위원회 대표가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데 대한 평가는.
▲경륜을 갖고 외연 확장 전략으로 선거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 이해찬 의원의 복당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연히 복당하도록 해야 한다. 비리가 있어서 아니고 공천이 안 돼서 탈당한 것이다. 세종시민이 재선임했기 때문에 본인이 당원 지위의 회복을 원하면 허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 전당대회 연기와 개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합의가 되면 전당대회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 벌써 야권통합 얘기가 나온다.
▲통합하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분열하면 작아진다. 그런데 엇지 해어졌는데 금방 통합이 되겠냐. 우선,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3당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야권통합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공천 과정에서 ‘정세균계’가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할 말이 많지만 그걸로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낙천한 사람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 국회의장·당권·대권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길을 가겠는가.
▲당권은 2005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 포함해 3번 잡았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
- 국회의장이냐, 대권인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기여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권능력 보여주지 못해

더민주 호남서 총선 참패

대권·국회의장

정권교체 기여 방법 고심

▲우선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실정과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 심판이다. 그러나 무능과 분열로 제 역할을 못한 야당도 같이 심판한 선거다. 특히 더민주의 수도권에서 승리했지만 호남에서 참패했다. 양꼬(쌀소) 없는 짝꿍이다. 선거 승리의 빛이 바랬고 당의 존립 기반이 위태롭게 됐다.
- 더민주의 호남 참패 원인은.
▲호남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집권이다. 그래서 그동안 호남은 더민주를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아낌없이 표를 주었다. 그런데 더민주의 호남에서 표만 달라고 하고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도 지켜내지 못했다. 수권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집권 전략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런 오랜 불만과 서운함이 쌓여 이번에 매섭게 야단친 것이다.
- 호남 참패 원인으로 ‘반(反)문재인’ 정서가 지적되는데.
▲딱히 한 가지로 보기보다는 복합적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 아파트·상의 사옥 건립 검토

광주도시공사, 소각장 부지에는 문화건강복지타운 추진
주민대책위 “의료기관 등 포함 종합복지타운 건립해야”

광주 도심 속 대표적 남비시설로 연말 폐쇄를 앞둔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에 아파트나 상공회의소 사옥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상무소각장 활용방안 마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소각장 인근 도시공사 소유 내대지 6만5000여㎡에 아파트나 광주상의 신사옥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말 폐쇄되는 소각장 부지에는 문화건강복지타운이 건립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부지는 물론 주변 부지도 광주에서 도시공사로부터 사들여 대규모 복지타운을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자체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시도 690억대 토지를 사들이는데 재정상 부담을 느끼는 형국여서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상무소각장 부지만 주민들이 복지공간으로 활용하

도록 축소하고 있다”며 “복지관, 도서관,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민의를 외면한 시의 행정위주의 총출 등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1년 6월부터 가동 중인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15년) 만료로 연말 폐쇄 예정이다. 기존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에 조성 중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 생산시설에서 처리하게 된다.
시는 오는 9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부지 활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UG 나눔축제’ 파이팅 27일 화순군 하니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 HUG 나눔축제’에 참가한 전국보호위원회 연합회 등 1500명이 화합을 다지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눔축제는 범부모회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국보호위원회연합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다. <광주시 제공>

“학교 건물 864개 중 내진 설계 적용 219개로 27% 불과”

“삼성차 전장사업 유지 총력”

광주시의회 임시회서 지적

광주시의회는 27일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 유지 총력, 지진 대비 건물 보강 및 교육 등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슬그머니 부활된 ‘가정방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4회 임시회 개최식을 열고 김동찬(더민주·북구5) 의원과 유정심(국민의당·남구2)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 문태환(국민의당·광산2) 의원의 긴급현안 질의를 가졌다.
◇“체계적인 지진 대책 마련을”=김동찬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지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34.6%, 공공기관을 빼면 5%안팎으로 떨어진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내진 설계 적용현황에서도 광주는 864개 건물 가운데 27%인 219개에만 적용돼 전국 평균(3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2010년 후 45억3000만원을 들여 9개교 17개 건물을 보강했으며, 올해

는 37억9000여만원을 들여 5개교 13개 건물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지진 당시 광주에서도 50여건의 감지 신고가 접수됐지만 시의 안내 등이 없었다”며 “시와 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지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층 미만 오래된 민간 건축물에도 내진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역 지진위험지도 제작, 대피소 관리상태 점검 등도 제안했다.
◇“삼성 자동차 전장사업 유지 총력”=주경남 시의원은 이날 “삼성의 자동차 전장사업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전장사업은 삼성이 지난해 12월 기존 주력 부문인 성상 한계를 극복할 ‘포스트 반도체’ 사업으로 전장사업 진출을 선언한바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유지는 총선 후보와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출발했지만, 실제 이행을 위한 해법 마련을 광주시의 몫이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주 의원은 “중국 ‘지우룽자동차’ 등의 광주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광주시의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 한다”면서 “실

질적이고 현실적인 유지사업추진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이뤄낼 수 있는 삼성의 전장사업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방문”슬그머니 부활=문태환(국민의당·광산2)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번 1학기까지 일부 학교에서 가정방문이 부활했다”며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왜 우리가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가정방문 시행학교는 초교 7곳, 중학교 35곳, 고교 7곳, 특수학교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거나 학부모 입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의 불만을 듣고 현황자료를 요청하자 시교육청은 뒤늦게서야 가정방문 시행사실을 파악했다고 문 의원 측은 전했다. 문 의원은 “맞벌이 학부모는 월차를 내야했고 가정통신문 송부, 일정 공지가 없어 불만까지 제기했다”는 하소연도 있었다”며 “학생 생활지도에 위한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지워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유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대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새 주인을 찾습니다 팬션 매매

아름다운 팬션 30여개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 I.C 15분/문평 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 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